

위대한 두 큰 축복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늘 아버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위대한 축복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물질로부터 그분께서 나오신 그분의 친 아들, 즉 그분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셀 수 없는 무한한 세월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이는 매우 가깝고 친하였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잠언 8:22-3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으로 인류를 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의 아들, 곧 그분의 독생자와 언약을 맺으셔서 죄인을 위해 죽기로 합의 하셨습니다. (롬 8:32)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제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위대한 축복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곧 전능하신 분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면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체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 생명, 곧 그분 자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 장 23 절 (고린도전서 6 장 17, 19 절, 고린도후서 6 장 16 절, 사도행전 17 장 27, 28 절 참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위대한 축복들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우리 생애를 그분께 바치기로 선택한다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복스러운 아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와 우리의 변치 않는 가까운 동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친구라니!! 그분과 이야기 할 때 그분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므로 나의 모든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들로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 장 3 절)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므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거짓 가르침들은 사단의 가장 위험한 거짓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내에 존재하는 한 인기 있는 가르침은 이 두 큰 축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가 아니다.
- (2)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 (3)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분을 보냈다.

이와 같이 이 거짓 교리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독자도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시작이 없이 하나님과 연세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나이가 같

은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1서 2:22

지금쯤 아마 여러분은 이 가르침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짐작하셨을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이심을 부인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 존재의 하나님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독생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로 가르치고 있으며 (요한복음 3:16, 롬 8:32, 시편 2:7, 잠언 8:22-30, 히 1:3-5,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육체만 돌아가시고 영은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안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갈바리에서 오직 인간의 육체만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세상의 죄를 갚기에 충분합니까?

만일 이 가르침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나의 죄를 위해 내어 주셨을 때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가르침의 두 번째 치명적인 위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버리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요 14:28)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예수님은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대로라면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자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경의 진리는 세 존재들이 아닌 오직 두 신성의 존재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전 8:6, 요일 1:3, 계 5:13, 7:10 등등) 성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 아니면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세 번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임재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주님이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엡 4:5)

또 성경은 오직 한 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엡 4:4)

한 주님과 한 영은 누구이신가? 답은 고린도후서 3:17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은 진리가 다음의 성경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 ◎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9,20)
- ◎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 17:23)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몸의 형체로가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그분들의 임재가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의 귀중한 것을 그대에게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요 3:16)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실 때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사랑에 관한 지식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내재(內

在)하시는 임재에 과한 지식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고아, 구원 얻을 길을 찾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무 도움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닌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생애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와 변치 않는 동료가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라니! 이것은 나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이 지식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무 어려워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사십니다. 나에게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여, 지금, 거짓된 삼위일체의 관한 가르침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초청합니다. 그분들께 그대의 생애를 영원히 바치고 지금부터 그분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까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